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메이저우서 전주 알려

김인태 부시장 단장으로 한 전주시 사절단, 개막식 참석... 3개국 4개 도시 우정 기념식수 통해 우호 다져

약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 대한 한국 관광거점도시이자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인 전주의 매력을 알릴 전주시 사절단이 파견됐다.

전주시는 김인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사절단이 지난 13일 저녁 중국 메이저우에서 열린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메이저우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중국 광둥성 북동부에 위치한 메이저우시는 화교의 원류인 객가문화가 발달한 도시로, 객가산가와 같은 객가인들의 민요와 다양한 무형유산이 많은 도시이다.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대한민국 전주시, 중국 청두·메이저우, 일본 시즈오카현의 4개 도시 중 이날 처음으로 개막식을 열었다.

전주시 등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각 개최도시의 행정단과 공연단이 함께 하는 메이저우의 개막식에서 시는 전주의 무형문화재인 기벌놀이 공연 영상을 통해 전주의 맛을 알렸다.

전주시 사절단은 이어 14일에는 중



김인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사절단은 지난 13일 저녁 중국 메이저우에서 열린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메이저우 개막식'에 참석했다.

국객가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도시간 우정 식수 행사 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와 중국 청두시

는 은행나무를, 메이저우시와 일본 시즈오카현은 각각 계수나무와 뽕나무를 함께 심으며 동아시아 3국 4개 도시 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도모했다.

김인태 전주시장은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메이저우시 개막식에서 "한해 동안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3국의 문화 다양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 중국 청두·메이저우, 일본 시즈오카현 4개 도시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한 축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개막식' 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주시와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의 문화공연이 진행되고, 초청가수 에일리의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정보 확인 및 티켓 예매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마약류 범죄 척결' 총력 대응

전북경찰청, 합동단속추진단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각종 마약류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 최고조 상황임을 인식,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전 기능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추진단 회의를 갖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기로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서 울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

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고 위해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사 수사 여성청소년 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마약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 마약단속반 등 수사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인 형사과장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경찰의 단속 활동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경아 기자

전북환경청, 화학사고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유해화학물질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범정부 차원으로 각 사회 전반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람·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거나 화학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특히 열화상카메라, 가스측정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필요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 작성여부'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결과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경아 기자

계류보전시설 설치공사 안전사고 노출... "대책 마련해야"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무주군 적상면 이등마을 주민과 마찰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시행처, 이하 산림연구소)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이등마을) 산137-1(산134) 일대 계류보전시설(사방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사방시설을 시공하여 국토의 황폐화 방지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및 재난방지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시행사인 (주)유림이 2023년 3월 23일부터 6월 20일(90일)까지 계류보전 1식 6면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이장·지역 개발위원 등과의 대화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공사에 대한 현황판도 없으며 주의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 시설물과 현장 사무실도 없고 현장대리인도 전무하다. 고작 장비 기사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주민 J(60)씨는 "공사 시 발생한 비산먼지와 각종 오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주민들의 땀이 됐다"며 "부대 공정이 현장 편의주의식으로 운



계류보전시설

영함으로서 피해를 주민들에게 덧씌우는 (주)유림의 행태는 반듯이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을 샅샅이 아울러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출입이 잦은데 공사현황판·주민 안전 시



이등마을 사방댐공사

설물 등이 없어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전문 솔루션팀 가동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교통안전 시설업무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장실무 전문가(9)와 교통공학 특재자(3)를 융합한 인력풀을 구성, 교통안전시설 분야 개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솔루션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북청 교통계장을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활동하는 솔루션 팀은 '안전은 두텁게'라는 패러다임을 선정하고, 현장 점검 및 교정 중심으로 활동하며 23년 1호 테마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 망사고와 관련,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상대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2급지와 3급지 중심으로 민원·사고다발 지역을 방문 최적의 대안 제시를 통해 일선현장 업무부담 경감과 각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의 등 필요시 전문자문 역할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등 신속

설치 추진 및 교통관련 기관 및 우수 지자체 선진 교통안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문적인 솔루션팀을 통해 전북의 교통환경이 한층 안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기자

덕진소방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 시행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을 위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초기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시행하면 생존율은 95% 이상이지만, 심정지 골든타임이라 일컬어지는 4분을 경과하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낮아져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심정지 상태 인지 부족, 심리적 두려움, 면책제도 및 응급처치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초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심정지 발생 초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